

# 전주시, 설명절 손님맞이 준비 분주

## 공무원·시민 3500여명 참여, 청소종합대책 추진 박차

전주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설맞이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설 연휴를 전후한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무단투기 제도·단속 등을 통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이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일반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지 외 고속·시외터미널, 전주역,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이면도로, 주택가 공터 등 각 동별 청소 취약지를 함께 정비하는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대청소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생활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성숙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또 일제대청소와 함께 청소지

주변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술선수법, 내 집 앞부터 치우기' 분위기 조성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집중 홍보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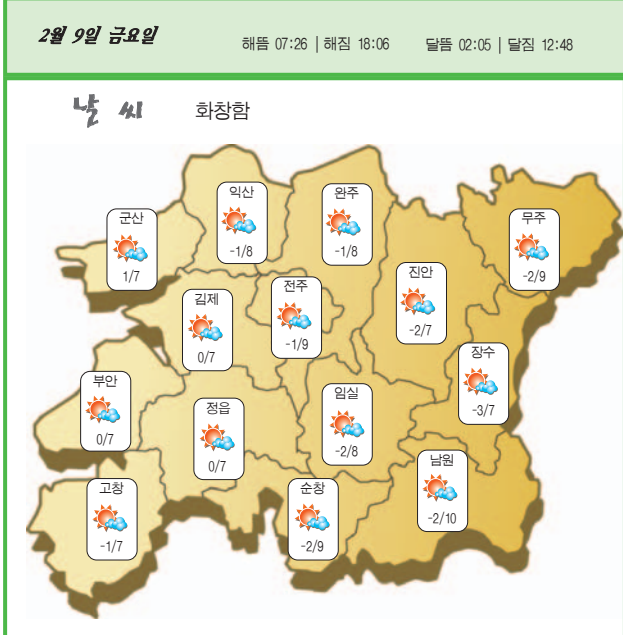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등의 쓰레기 수거일정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쓰레기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처리를 위한 청소상황실과 기동처리반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활용

해 설 연휴기간 과일박스와 스티로폼 등 선물포장 박스의 급증으로 수거지역이 예상되는 재활용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요령과 재활용 불가품목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배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일요일과 설 당일인 오는 16일에 한해서는 쓰레기 수거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 후 배출해 달라"면서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철저 및 꼭 필요한 음식 정만하기 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 과학동아리 '솔빛공방' 교육계 이목 한몸에

### 코리아로봇챔피언십 3년 연속 출전권 따내



전주솔빛중학교 과학 동아리 솔빛공방 학생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솔빛중학교(교장 박경철) 과학 동아리 솔빛공방은 올해 1월, 3년 연속 세계로봇대회에 출전권을 따내는 기염을 토해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학년 임소현 외 10명(김주원, 김학겸, 노유진, 박찬우, 유하연, 윤겸, 이상범, 이희원, 임요한, 정하람)으로 구성된 솔빛공방팀은 올해 1월(2018.1.27.)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2017-2018 KRC(코리아로봇챔피언십) FLL(퍼스트레고리그)"에 참여, 시·도 대회를 걸쳐 출전한 104팀 중 'Robot Performance(로봇경기)' 부문에 2위로 입상하여 5월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이는 작년과 제 작년 유럽 대회 출전이며 더욱이 이 팀은 2015년 동아리 첫 결성부터 전북 내 학교 단일 팀으로 유일하게 세계 대회 출전권을 연속하여 거머쥐었기에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 70여 개국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FLL로봇대회는 미국의 MIT 신입생의 20% 이상이 참가 경험 있을 정도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대회이며 이번 대회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5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솔빛공방팀은 'Robot Performance(로봇경기)' 부문뿐만이 아닌, 프로젝트 부문에서도 물의 올바른 순환을 위한 '교내 양치컵 사용 캠페인'과 '넛지 효과(nudge effect-부드러운 개입을 통한 타인의 선택 유도)를 이용한 세면대 절수 스티커', '세면대 용량표시제' 등의 아이디어를 선보였으며 '하이드로 다이내믹스(Hydro Dynamics)'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세계대회에서 스마트폰으로 개인 물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하기 위해 동아리원은 방학을 잊고 코딩작업에 매진중이다.

이 동아리는 논리적인 과학 활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팀원 간의 의사소통, 상호존중, 배려를 통해 협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으며 동시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를 독려하여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중학교 내의 자율동아리로 그 규모는 비록 미비하나 과학 공학도로서의 기초 실력과 올바른 성품의 인재 육성이 미래교육을 미리 실천하고 있어 전북 교육계에 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북대 치과과사 양성 최고 국가시험 국내 유일 전원합격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최근 발표된 치과과사 국가시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합격률을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치과과사 양성 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전북대는 2018년 치과과사국가시험에서 졸업예정자 39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100% 합격한 것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서도 유일한 기록이다.

전북대 치대가 매년 국내 1위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학생들의 열정과 학과의 학생 교육 지원 시스템 등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 치대는 2012년 치의학 기본교육 인증평가에서 4년 인증을 받아 양질의 치과과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민호 치과대학장은 "치과대학이 매년 국가시험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체계적 교육과정과 교수 및 학생들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세계를 선도하는 치과과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8일 오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7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 도교육청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 수여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오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7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들이 참석했으며, 전주주부평생학교 24명, 군산시 늘푸른학교 11명, 시민교육센터 8명, 우리배움터한글학교 6명, 무궁화야학교 8명, 우리배움터한글교실 9명, 진달래학교 11명이다.

이수자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74명이고, 최고령자는 85세 김중화씨(82년생)이며, 최연소자는 58세(59년생)이다.

전북도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10개 기관에 2018년부터 5개 기관이 추가됐으며, 지금까지 총 160명이 문해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획득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학력인정 초등교육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수까지는 단계별 1년씩 총 3년이 소요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갖춰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민근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